

자체개발·핀테크 연합…금융사 ‘마이데이터’ 시대 준비중 (3월 마지막째주)

데이터 기반 증권사로 대변신하는 NH투자증권…금융투자에도 ‘맞춤 추천’ 기능 도입한다

좌초 위기 ‘토스뱅크’… 토스 “끝까지 완주”

거부할 수 없는 ‘챗봇 물결’… 일자리 잠식은 고민

사내벤처 육성 나선 코스콤, 3개 사내벤처 출범으로 ‘코스콤 5.0’ 혁신 나서

금융정보 주권, 소비자가 쫓는다

‘마이데이터’ 혁신은 일자리 ‘화수분’

[데이터산업 활성화 시대]‘중복 규제·관리 분산’ 개인정보보호 법령 일원화 필수

제3 인터넷은행 인가전 시작…키움뱅크 vs 토스뱅크 운명은

“토스는 또하나의 인뱅 아니다”…글로벌 챌린저뱅크 모델 추진

자체개발·핀테크 연합…금융사 ‘마이데이터’ 시대 준비중

데이터허브 얼라이언스 출범…이노그리드·테라텍·인텔 등 참여

금감원 들어가면 금융상품 정보 ‘한눈에’…흩어진 내 계좌 확인하려면 ‘페이인포’

카카오뱅크 ‘주식계좌개설 서비스’ 출시

한화, K뱅크이어 `토스은행`에도 참여

[IT칼럼] 유럽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과 우리의 대응

제로페이 승부수, 4월에 쏟아진다

[단독]월회비 내면 사용액 3% 돌려줘요..토스, 충전식 선불카드 내놓는다

P2P금융協 등 5개 협회, ‘P2P금융 법제화 지지’ 공동 성명 발표

간편결제 등 암호화폐 핀테크 서비스 쟁점

한은, 올해 블록체인 증권결제 모의테스트 시행…”CBDC발행은 시기상조”

KT 공정법위반 추가 조사…케이뱅크 자본확충 ‘빨간불’

코스콤- 신한카드 외국인 금융플랫폼 개발

‘마이데이터’ 마지막 관문은 시민단체 걱정

토스 손잡은 한화투자證, 제3인터넷銀 인가전 합류

농협, 국내 최대 규모 ‘디지털 33’ 연합 출범…IoT 등 33개사 기업 키운다

키움은 생활인프라, 토스는 IT…”제3 인터넷銀 우리 차지”

핀테크 키우자면서 발목잡는 공정거래법… KT·카카오 ‘인터넷銀 경영’ 위기

[인터뷰]남영수 농협금융지주 디지털금융부문장(CDO) “금융혁신 인프라 1호 만들겠다”

P2P 대출업체 최소 자본금 10억… 고객 자금 다른 용도 사용 금지

“기술만이 능사 아니다…핀테크 성공의 열쇠는 결국 신뢰”

토스 “증자 자신 없었다면 인터넷은행 시작도 안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혁신성·서민금융'에 방점
[백브리핑]카카오페이에 뿔난 금융당국
클라우드펀딩의 위기...1호 플랫폼 절반 이상 문닫았다
어도비 "데이터 개방·공유로 고객경험 혁신"

* 기사동향 해당기사로 바로가기는 클릭하면 됩니다.

* 위 기사들의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